

전북 농촌유학, 학령인구 소멸 위기 넘는다

지속 가능 교육생태계 조성 자리매김

전북 농촌유학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농촌유학 참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 농촌유학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4~17일 진행된 이 조사에는 유학생 학부모 48명, 유학생 47명, 재학생 학부모 56명, 재학생 118명 등 총 269명이 참여했다.

유학생 학부모들은 응답자 전원이 만족한다고 답해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 97.9% △지인들에게 추천 의사 97.9% △농촌유학 참여 목적도 달성 91.7% △재참여 의사 89.0% 등으로 나타났다.

농촌유학 참여 이유로는 '자녀에게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6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녀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길 희망해서' 22.9%, '스트레스 감소 및

지난해 참여자 만족도 높아... 2022년 이후 꾸준히 늘어



전북 농촌유학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은 도내 어느 학교에서 진행된 농촌유학 프로그램.

정서적 안정' 4.2% 등으로 조사됐다.

유학생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 78.7% △학교생활 만족도 91.5% △교우 만족도 74.9% △친구들에게 추천할 의향 68.1% 등으로 집계됐다.

재학생 학부모들은 자녀 학교의 농촌유학 운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78.6%로, 농촌유학을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83.9%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유학 운영이 지속될길 바라는 이유로는 △아이가 교류할 수 있는 친구가 많아지기 때문(48.2%) △학생 수 증가로 학교가 활성화(35.7%) △학교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운영(10.7%) 등을 꼽았다.

재학생 역시 새로운 친구와 지내는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81.3%

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져서'가 50.3%로 가장 높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가 20.6%, '새로운 친구들과 서로 잘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가 14.3%로 뒤를 이었다.

농촌유학 지원 경비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4.2%가 '현재 지원 경비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31.2%는 '서울 시교육청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유학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16.7%는 '다른 시·도의 농촌유학으로 이전하겠다', 12.5%는 '원적교로 복귀하겠다'고 답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전북 농촌유학이 단순히 도농 교류의 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전북 농촌유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2025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4.51대 1'

일반학생 전형서 치의예과 9.63대 1로 '최고 기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 3일 오후 6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299명 모집에 5,858명이 지원해 4.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520명을 선발하는 가군에는 모두 2,886명이 지원해 5.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779명을 모집하는 나군은 2,972명이 지원해 3.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별로는 가군 일반학생 전형은 5.56대 1, 지역인재전형(2유형)은 10.4대 1, 농어촌학생전형은 7대 1, 기회균형선발 전형은 14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군에서는 일반학생 전형 4.19대 1,

지역인재 2유형(전북권) 3.34대 1, 지역인재기회균형 전형(호남권) 4.25대 1, 일반학생 전형(예체능) 3.77대 1, 농어촌학생 전형 10대 1, 기회균형선발 전형 11대 1 등이었다.

정원 증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의예과에는 나군 일반학생 전형에서 33명 모집에 142명이 지원해 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역인재 2유형(전북권)은 38명 모집에 127명이 지원해 3.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인재기회균형 전형(호남권)에서는 4명 모집에 17명이 지원해 4.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 가군 일반전형 치의예과로, 8명 모집에 77명이 지원해 9.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방법은 예체능을 제외하고 가, 나군 모두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예체능의 경우 수능, 실기고사 성적이 반영된다. 만학도 전형(농생대 생명자원융합학과) 및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은 수시모집과 동일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반영된다.

수능성적은 국어 및 수학영역은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탐구영역의 경우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며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예체능의 경우 1월 16일 실기고사가 진행된다. 합격자는 1월 31일 오후 2시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s://enter.jnu.ac.kr/>)를 통해 발표된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9일 RISE 연계 대비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오는 9일 오후 4시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RISE 연계를 대비한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우수 가족회사 공로패 수여와 LINC 3.0 사업 주요 성과보고, 산학협력 우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LINC 3.0 사업단이 지난해 추진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와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등의 성과물도 함께 전시된다.

박노준 총장은 "우석대학교가 지난해 일궈낸 산학연 협력 선도모델과 산학공동기술개발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RISE 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최적화된 지산학연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도서관, 8~10일

학생 대상 논문 작성 특강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설동훈)은 오는 8~10일 3일간 1층 중도라운지 강연장에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 작성 집중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학술자원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강의를 통해 대학구성원 및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이번 특강은 △전략적 과제 및 논문 작성법(1회차), △영어 논문 작성 및 학술지 투고 방법(2회차), △AI 및 ChatGPT를 활용한 논문 작성법(3회차) 등 연구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됐다.

강의는 논문 컨설팅 전문 기업 드림셀과의 윤선희 대표와 김정수 박사가 맡아, 논문 작성 과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노하우와 최신 도구 활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s://dl.jnu.ac.kr/>)를 통해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회차 당 최대 10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설동훈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학문적 성장을 이끄는 교육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방대학 활성화 종합실적 'A등급'

전주대, 지자체-대학 간 협업·소통 구조 구축 등서 높이 평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교육부의 지방대학활성화사업 2024년 연차평가 전국 최고 등급에 이어 종합실적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66개교를 대상으로 진행, 지자체-대학 간 협업·소통 실적, 특성화를 위한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실적, RISE 연계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했다.

지난 3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자체-대학 간 협업 및 소통 구조가 잘 구축되어 있는 점 △모집단위 광역화로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고 3개의 특성화 학부를 신설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점 △삼각직교수 제

도, 교수자원 통합관리, 업적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특성화를 위한 교원을 확보하고 지원한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점 △타 정부 재정지원사업 내용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지역수요 맞춤형 특성과 인재육성을 위해 학과 간 칸막이를 허무는 마이크로전공 체제로 전환하고 관련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는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정주형 특화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기업-지역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 지난 3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2025년 신동아학원 시무예배를 갖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새해 송아지 같이 뛰는 한 해 되길”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을사년 시무 예배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사장 차중순)이 지난 3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2025년 신동아학원 시무예배를 갖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시무예배에는 차중순 이사장과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전주대, 전주비전대, 전주영생고, 전주대사태보고 등 4개 학교 교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주비전대 김영선 목사(교목)의 인도로 시작된 시무예배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연합찬양팀의 특송, 전주대 한병수 선교봉사처장의 대표기도, 학

교법인 신동아학원 차중순 이사장의 설교 및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차중순 이사장은 '송아지 같이 뛰리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통해 "누구나 원하는 쉽고 빠른 길을 가기보다는 신동아학원 산하 4개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새해를 맞아 '지속 가능한 혁신'과 '지역과의 상생 발전'이라는 2가지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는 지난 2일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시무식을 갖고 2025년 새해의 문을 열었다.

“교육 발전 선도 기관으로 거듭”

전주교대 시무식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일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시무식을 갖고 2025년 새해의 문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주요 보직자, 대학, 전주부설초, 군산부설초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무식은 개식, 국민의례, 표창장 수여, 총장 신년사, 전주부설초, 군산부설초 교장의 새해 덕담, 폐식 및 기념촬영, 교직원 상호인사,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박병춘 총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평가와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고 또 80억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이를 바

탕으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도 이뤄졌다. 교육부장관 표창은 박민아 팀장(교육대학원) 외 직원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우수 학과 및 우수 부서 표창은 교직 전문성과 훌륭한 예비교원 양성에 기여한 △미술교육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와 대외경쟁력 제고, 교육·연구 환경개선,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보인 △기획처·산학협력단 △교무처 △총무처(재무팀)가 선정됐으며, 우수직원 표창은 업무혁신과 우수 업무성과를 보인 김수영 팀장(기획처) 외 직원 4명에게 총장상을 수여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유아들의 올바른 성장·발달 돕는다

전북교육청, 유아 정서·심리 지원사업 추진... 가정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일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가칭)영유아학교 시범교육청 특색사업 일환으로 '유아 정서·심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기기 사용 연령 하향화 등으로 정서·심리 지원이 필요한 유아가 증가하면서 조기 치료 지원을 통해 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함이다.

오는 2월까지 운영되는 이 사업은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과 개별 유아 맞춤형 치료 지원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관으로 찾아가는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은 △스크리닝 검사 △그림해석 및 피드백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으로 유아의 안정적인 정서·심리 발달을 지원한다.

이어 개별 유아 맞춤형 치료 지원은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추천받아 전문상담 치료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가 정서·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 시, 개별 유아 맞춤

형 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30개 기관, 100개 학급에서 1,268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운범 과장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태어난 유아들이 정서·심리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북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유아가 안정적인 정서·심리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전북교육청, 7~22일 예술활동 지원 등 14개 분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7~22일 '2025년도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하면서 민간의 교육사업 참여 증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학생중심전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예산 편성 전에 보조사업자가 미리 선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모분야별 예산 규모가 전북자치도의회에서 확정되고 예산이 편성된 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지원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고 적정 예산으로 편성·지원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모 분야는 경제교육, 독서토론 교육활동 지원, 예술활동 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성교육 지원, 환경교육 지원, 민주시민교육지원 등 교육·학예에 관한 분야다. 예산은 17억 원 안팎이다.

지원 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사무소가 전북에 있고, 사업 범위가 전북 관내에 해당하는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비롯한 초·중등교육과 관련 사업인 단체 △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등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단체는 전북교육청 누리집 '민원·참여-민간보조사업-공

모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누리집에 공개되고, 이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분기별로 집행내역이 공개된다. 또한 보조금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성과평가를 실시해 다음 해 보조금사업 심사에 반영된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적정하고 필요한 보조사업자 사업이 선정돼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적정한 규모로 지원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